



대전동산중학교
진병훈 교사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한국아마추어천문인 공로상' 교사 부문에 대전동산중학교 교사 진병훈 씨가 선정되었다. 대전 지역에서 천문 지도사로 학생 천문 교육과 지도 교사 양성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병훈 씨를 만났다.

“내일이 방학입니다. 2월까지 연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일로 학기와 비교해도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잠 내서 그 동안 전념하지 못했던 별 보기도 열심히 해야죠.”
2학년생을 담임을 맡고 있는 진병훈 씨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한 건 서해안 해뜨는 마을로 유명한 충남 당진의 왜목마을이었다. 그게 벌써 26년 전 일이다.
“당진에서만 17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전공은 원래 화학이었는데, 1996년에 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실시했던 교사 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별이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당진과 대전을 오가며 대전 지역 아마추어 천문인들과 인연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망원경을 구입해서 천체 관측

도 하곤 했습니다. 당진에 좀더 근무했으면 별측제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막 갖기 시작할 무렵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 뜨는 마을에서 큰발로

대전으로 옮기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고향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어느 부모나 생각하는 자녀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적인 교직 경력만을 생각한다면 당진에 계속 있었던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저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더군요. 결국은 고향과 자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한 가지 얻은 게 더 있다면,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기에 그 어느 곳보다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진병훈 씨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만인산 학습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별과 함께 하느라 아내에게 소홀한 것이 늘 미안하다는 진병훈 씨.

등에서 천문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한 달에 세 번 정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도교사협의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진행을 도와주죠. 만인산 학습원에서는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천체 교육을 합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천체 과학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녁에 학교로 버스를 보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소만 다르지 활동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끔 지도 교사 분들과 번개 관측도 가긴 합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지도 교사 회원들이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천문 연수도 하고 있다. 이 외에 지도 교사 자체 교육도 실시한다.

“평소에는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지도 교사들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천문학자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 이런 별을 바라보고, 학생들에게 이런 별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진병훈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우주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이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별을 가르치고, 별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건 별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진화는 어떤 식으로 된다는 그런 학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호기심 그 자체만이라도 아이들이 갖길 바랍니다. 그 호기심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작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서 천문학자가 나와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10여 년 천문 활동을 해오면서 진병훈 씨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추위에 떨며 별뿔별을 본 것이라고 한다.

“1998년인가 사자자리 유성우의 대출현이 예상되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대전지부에서 적상산으로 관측을 갔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었죠.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보일 듯 하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비록 별뿔별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밤새 추위에 떨며 모닥불 앞에서 밤을 새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마도 너무나 고생해서 그럴 겁니다. 학생들도 학창 시절에 무서운 선생님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호랑이 선생님

별 보는 사람은 좀 부드러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악역도 필요한 법. 비록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으로나마 자신을 기억해주고, 가끔은 찾아주는 제자들이 고맙다고 하는 진병훈 씨. “올해 우리 학생들이 천체관측대회에서 금상을 처음 받았습시다. 무서운 선생 만나서 무지 많이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혼나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즐겁게 따라와 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천문 활동처럼 직접 만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체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별 보는 것도 밤 시간이고, 주중에 있는 지도 강사 활동도 저녁 시간이다 보니 일주일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때가 몇 번 안 된다고 한다.

“지난 번 공로상 수상식 때도 아내에게 많은 시간을 혼자 있게 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늘 미안하고, 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내가 들으면 섭섭해할지도 모르지만, 천문 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보람, 천문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감, 이 모든 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별을 보여 줄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하지만, 밤에 하는 활동이다 보니 이를 이해 못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 더 노력하고 분발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 진병훈 씨. 무서운 선생님이요, 그리고 정말 별을 사랑하는 멋진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본다.